

싱가폴 에어쇼 참관기

| 심성테크의 내리 | 조성호 |



매일 1회 이상의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와 30도를 상회하는 기온, 자국 생산품이 없는 관계로 모든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지의 실정 때문에 결코 싸지 않은 물가 등 싱가폴은 그리 좋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만은 없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연중 개최되는 전시사업을 통하여 국부에 기여시키고 있다. 또한 1년내내 서머타임을 적용하여 금융부문의 선발주자인 홍콩과 동시간대에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이 부문에서도 제2의 홍콩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도시국가인 싱가폴이다. 에어쇼 및 군수전을 개최하고 있는 국가들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등이 금번 싱가폴 에어쇼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여 자국의 에어쇼 홍보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싱가폴 에어쇼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역시, 참여업체 중 하이라이트는 자국업체인 싱가폴 테크놀러지의 전시다. 자국에서 에어쇼가 개최되는 잇점을 십분 활용, 메인전시

홀 입구를 별도로 자사의 전시회장으로 꾸며, 항공기 기체는 물론 엔진전자보기미사일 등 자사의 모든 생산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시하고 각각의 제품에는 담당자를 1대1 배치시켜 관람객들의 문의에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었다.

당사는 4부스 (36㎡) 규모로 참여를 하였으며, 엔진정비 관련 MARKETING 및 소개, 엔진부품제작 및 복합발전사업, 터보기기 사업 및 신규사업인 민항기엔진정비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였다. 많은 업체관련자 및 민간인들이 당사의 전시장에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방문한 공군 관계자, 각 지역 항공산업 종사자 및 에이전트 후보들이 당사 전시장을 찾았다. 당사는 PW, PWC, GE, HONEYWELL, HAMILTON SUNDSTRAND, SERMATECH 등 엔진 관련업체 및 인니공군, 베네주엘라공군 등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 지역 에이전트 후보들과의 면담을 통해 잠재시장에 대한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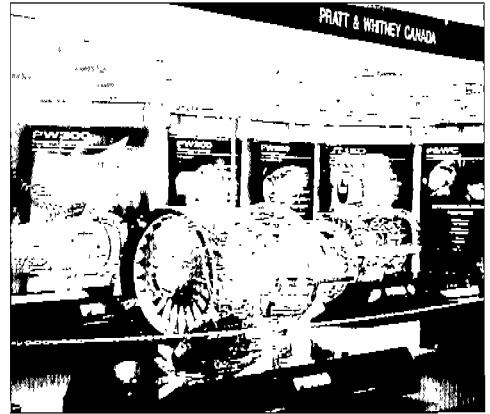
당사의 전시규모는 엔진 원제작사들에 비하면 아주 작았으나, 금번 참여를 통해 기존고객들에게는 당사의 능력을 재고시키고 동남아 및 중동지역의 잠재고객들에게는 당사를 소개시키며 신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을 만들 수 있었다.

금번 에어쇼에는 국내업체로서는 당사 및

LG-카모프,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만이 참여를 하였으며 벨기에나 이스라엘, 캐나다와 같이 국가관을 만들어 공동 마케팅을 펼친 업체들의 홍보효과가 관람객들이나 잠재고객들의 주목을 더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국가관을 꾸밀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해외 에어쇼 참여시에는 다른 국가들처럼 한국관을 별도로 만들어 한국업체의 홍보효과를 배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싱가폴 에어쇼를 세계3대 에어쇼중의 하나로 발전시킨데에는 정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싱가포르 에어쇼 진행요원들의 활약도 빼놓지 못할 것이다. 행사준비나 진행시의 애로사항을 그때마다 즉시 해결하여 주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전시업체들을 도와주었으며, 전체적인 일정도 별무리없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에어쇼 참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얼마나 진행요원이나 현지의 공식지정업체들이 참여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냐에 많은 부분이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에어쇼 진행요원들이나 공식지정업체들 즉, 장치/운송/전기/배선 업체 등이 일체의 지체도 없이 업체의 예정되지 않은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줌으로써 행사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싱가폴은 이번 에어쇼 말고도, 국제 가구전, 씨푸드 박람회, 관광박람회, 세계 책전시회 등의 수많은 전시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행사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장려 아래 외화획득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영어권 국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참여를 하고 있다.



한국도 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하면 싱가포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어느 택시기사의 말에서, 모국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하나의 자그마한 도시국가가 주변국과의 사이에서 부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프랑스마저 관제탑과 항공기간의 공식교신언어로 영어를 채택하는 시점에서 전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사용은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제2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하려는 일본에 우리나라는 그만큼 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내년에는 제3회 서울 에어쇼가 성남비행장에서 개최된다. 우리 역시 깔끔한 진행과 편리한 주변 이용시설의 구비 및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로 참여업체 수 및 참여국가를 유치한다면 싱가포르 에어쇼 못지 않은 아시아 제1의 에어쇼를 개최할 날도 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